

Cello Sonata No.1 'Classic'

I. 소나타 형식

II. 복합3부분 형식 표제: '기도'

III. 론도 형식

작품 개요

이 곡은 작곡자가 24세 때인 1946년 6월 24일 작곡하였다가 1952년 12월 24일 원보를 분실한 후 26일 복원한 작품으로서 1976년 4월 8일 제3악장 Rondo의 A부분만 수정하였다. 이 작품은 1946년 6월 29일~30일 국제극장에서 열린 조선음악가협회 주최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에서 이강렬의 첼로, 김원복의 피아노로 초연되었으며, 1952년 12월 27일 부산 이대 강당에서 열린 <제1회 나운영 작품연주회>에서 첼로 김재홍, 피아노 정진우에 의해 재연되었고, 1968년 8월 1일 첼로 이방은, 피아노 임자향에 의해 KBS FM <방송음악회>에서 3연되었다.

작곡자의 해설

3악장으로 된 이 「첼로 소나타」의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제2주제를 5음음계로 작곡했고, 제2악장은 복합 3부분 형식으로 '기도' 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제3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민속적인 멜로디에 굿거리 장단을 곁들여 우리 음악의 멋과 맛을 풍긴 작품으로서 토착화에 대해 눈이 뜬 최초의 실내악 작품이다.

작품에 얽힌 이야기

이 곡은 조선음악가협회 위원장인 이영세 선배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고 1946년 6월 24일 작곡하여 6월 29일~30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로 국제극장에서 개최한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에서 이강렬(李康烈, cello), 김원복(金元福, piano)의 연주로 초연하였다. 이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에는 '조선악단의 지보(寶) 총출연'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약관 24세의 나운영의 작품이 박태준, 이흥렬, 김순애, 안기영, 현제명, 임동혁, 김세형, 김성태, 흥난파와 함께 연주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나운영은 이 날의 연주에 대해, 이강렬은 음악학교 3년 선배요, 김원복은 민족의 노래 「봉선화」의 작사자이자 은사이셨던 김형준 선생님의 따님이시니 당대 최고의 연주가에 의해 자신의 처녀작이 초연되었다는 것은 천행이 아닐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 곡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

6년 후인 1952년 12월 부산 피난 시절 열린 <제1회 나운영 작품 연주회>에서 이 곡을 재연하였는데, 김재홍이 첼로, 정진우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안병소 선생께서 친히 레슨을 맡아 연습을 시켜 주셨었다. 그러다 연주회를 1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정진우씨가 연습을 마친 후 악보를 끼고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악보를 분실한다.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연주를 취소할 수도 없어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첼로 파트만은 김재홍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운영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틀만에 피아노 파트를 다시 썼고 이것이 원본과 조금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져 거뜬히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운영은 처녀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말하였다.

작품 해설

이 Cello Sonata의 제3악장(Rondo)의 Episode [B], [C] 등에서는 굿거리장단을 활용하는 등 매우 한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작품은 또 장3도 병행법을 사용하여, 화음색채의 과거적 개념으로부터 Debussy의 화음 색채에 가까운 구사를 꾀하였던 작품이기도 하다.

-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중에서 -

